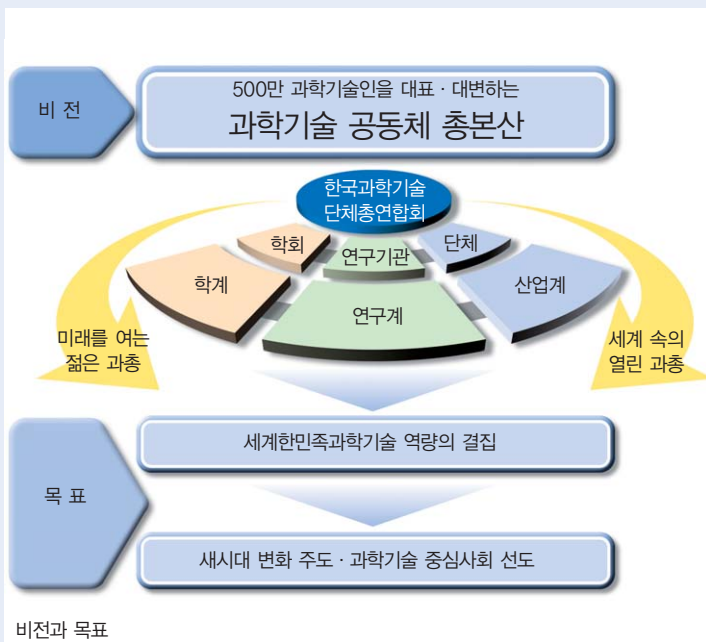


# 창립 40돌 맞아 새로운 '과총비전' 선포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시기인 1966년 설립돼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해 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200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과총이 이룬 업적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학기술을 연구하던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이 새로운 산업과 수요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혁신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YGF 참가 학생들의 창립 축하공연 모습

## 미래를 여는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

과총은 지난 40년간 과학기술 단체의 육성과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의 대표 기관이다.

특히 과학기술처 설치와 과학기술진흥법 제정, 과학의 날 지정 등 각종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학술활동의 요람인 과학기술관련 전문 학회를 지원·육성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인의 힘을 모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이루는 일에 과학기술인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채영복 과총 회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참여라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에 비취 과학기술국정은 더 이상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과총은 과학기술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 시대 요구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로서 과학기술부, 연구수행주체로서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국정의 제3기둥으로서 과총이 과학기술인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채 회장은 “미래를 여는 젊은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을 모토로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며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공동체의 총본산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과학기술국정의 제3주체로 거듭날 것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할 과총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은 크게 5가지다. 첫째, 과학기술계의 충실한 목소리의 대변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토론에서 도출된 논의는 스터디 서클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정부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과 정부, 일반인 사이의 소통의 활성화다. TV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와의 일반인의 쌍방향 네

다섯째,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 교류의 중심 역할 수행이다. 남북 민간 과학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12개국에 결성돼 있는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지원하며 해외 고급 과학두뇌를 유치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총은 관료적 조직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혁신 방안도 마련해 아름다운 직장 문화를 꿈꾸고 있다. 우선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공정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인사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과중심의 조직



대회기간중 과총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 개최 모습

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STS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과학기술국정의 견제와 감시, 공동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국정 기조가 말해주듯 과학기술 정책수립은 더 이상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주체와 함께 과총이 과학기술국정의 제3주체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연속성을 지켜나갔다는 의지다.

넷째, 과학기술 학술활동의 산실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회 학술대회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며 국제적 수준의 학회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학술활동 지원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운을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과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회관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과학사랑 기금도 조성한다.

채 회장은 “과학기술인에게 사랑받는 과총,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총,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정책적 자문 요청이 쇄도하는 과총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㉔

글 | 서금영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